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20

▶ **21회 예고**
웃자인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난다. 이번에도 빈두사라는 아쇼까를 부왕으로 보내고 싶지만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한다. 칼라따까 제관은 아쇼까의 어머니 다르마를 찾아가 설득한다. 마침 왕궁에 왕자독살 미수사건이 일어난다.



두 번째 부인 아상디밋따를 만나다

아쇼까는 아내 빠드마바띠가 죽은 것을 알고는 슬픔을 이기지 못했다. 다르마 왕비별궁에 가서 꾸날라를 보고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아 강가강으로 나와 말을 탔다. 탁실라에 있는 동안 아내의 죽음을 숨긴 아버지 빈두사라가 원망스러웠다. 어머니 다르마도 원망스럽기는 마찬가지였다. 빠딸리뿌뜨라 궁궐에 있는 모든 신하들에게 배신감을 느꼈다. 아내의 죽음을 자신만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쇼까는 도티를 입은 채 강가강에 풍덩 뛰어들었다. 뜨거워진 몸을 식히느라고 몇 번이나 자맥질을 했다. 비로소 그의 큰 눈과 코가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났다. 말먹이꾼은 어느 새 작은 배에 말을 태운 채 아쇼까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쇼까가 강물 속에서 나오지 않자 말먹이꾼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왕비님께서 별궁으로 왕자님을 모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알았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이렇게 하루가 가는구나."

말먹이꾼은 아쇼까의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 같았다. 아쇼까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강가강을 건너면서 '아, 나를 속였구나, 나를 이용했구나.' 하고 혼잣말을 중얼거리곤 했던 것이다. 어머니 다르마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겠지만 아버지 빈두사라는 아쇼까를 속이고 이용한 측면이 있었다. 탁실라에 가 있는 아쇼까에게 빠드바마띠가 죽었다는 소식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었기에 그랬다. 젊은 시절, 기마군사를 교육시킨 적이 있는 군관 출신의 늙은 말먹이꾼이 말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대왕님께서는 비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 자식 사이인데 어찌 비정해야 한단 말이냐?"

"대왕님께서는 탁실라의 반란을 오직 왕자님만이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자님이 흔들릴까봐 그러셨을 것입니다."

"너는 말먹이꾼으로서 어찌 대왕님의 마음을 잘 아느냐?"

"왕자님께 오기 전까지는 칼라따까 대신님의 말먹이꾼이었습니다. 대신님께서는 저에게 온갖 얘기를 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말먹이꾼은 아쇼까를 내심 놀라게 했다. 그의 말에는 지혜와 논리가 있었다. 군관 출신이었기 때문에 미천한 마구간지기와는 달랐다. 아쇼까는 강가강을 건너 자신의 별궁으로 가지 않고 다르마 왕비별궁으로 올라갔다. 강물에 젖었던 도티와 바지는 건조한 강바람에 말라 고슬고슬했다. 다르마는 오후 내내 아쇼까를 기다렸다는 듯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말먹이꾼은 말고삐를 잡고 풀밭으로 사라졌다. 다르마가 말했다.

"아쇼까야, 나를 원망하지 마라. 빠드마바띠는 내 앞에서 편안하게 눈을 감았다. 꾸날라를 부탁한다고도 말했다."

"어머니, 빠드마바띠가 죽었다는 소식을 왜 전해주지 않았어요?"

"대왕의 명이었다. 네가 슬퍼할까 봐 누구도 입을 열지 말라고 했다."

"이 말씀을 하려고 저를 불렀습니까?"

"그래. 네가 나를 원망하고 있는 것 같아 불렀다. 아쇼까야,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아느냐? 너에게 지금 이 말이라도 하고 나니 괴로움이 조금 가시는구나."

그때 궁녀가 어린 꾸날라를 안고 왔다. 꾸날라는 아쇼까를 보더니 경계했다.

"꾸날라야, 네 아버지다."

다르마가 눈짓을 하자 락슈미띳사가 꾸날라를 아쇼까에게 안겼다. 아쇼까는 꾸날라를 안더니 눈물을 보였다. 꾸날라는 큰 눈을 껌벅거리며 다르마에게 가겠다고 발버둥쳤다. 다르마가 꾸날라를 양모처럼 길렀음이 분명했다. 아쇼까가 무뚝뚝하게 말했다.

"어머니, 가서 쉬겠습니다."

"예전처럼 스승을 구해 만나거라. 너는 아직도 왕자로서 배워야 할 것이 많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베살리로 간 목갈라뿟다띳사를 다시 부를까?"

"아닙니다. 라다굽따 제관님이 있지 않습니까? 당분간 혼자 지내고 싶습니다."

아쇼까가 일어서자 다르마가 만류했다.

"사실은 대왕님이 이곳으로 오시기로 했다. 그러니 잠시만 여기 있거라."

"저는 대왕님을 나중에 뵙겠습니다."

아쇼까는 다르마가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휙 일어나 나가버렸다. 다르마가 "아쇼까야, 아쇼까야" 하고 불렀지만 소용없었다. 락슈미띳사가 문밖까지 쫓아나가 보았지만 아쇼까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락슈미띳사가 다르마에게 말했다.

"왕비님이시여, 왕자님께서 대왕님을 지금 만나는 것은 좋지 않을 듯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오해는 저절로 풀리니까요." "대왕님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좋을 일이 뭐 있겠느냐. 나는 그것이 걱정스럽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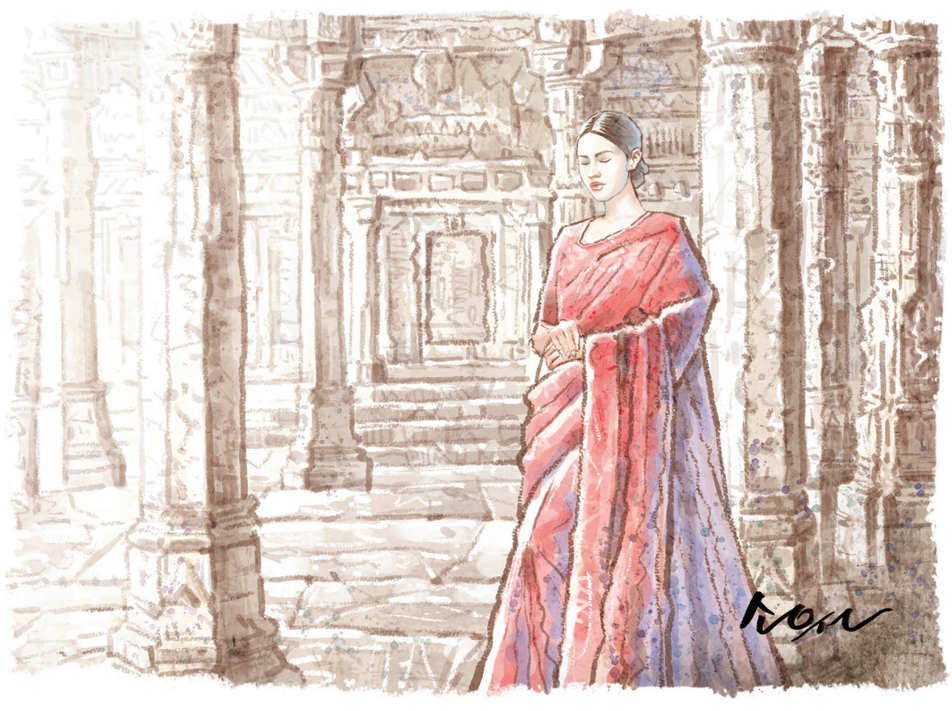
강가강에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해가 지평선 너머로 질 때마다 불어오는 강바람이었다. 강바람에는 궁중정원에서 피어나는 꽃향기가 묻어 있었다. 다르마는 꽃향기를 맡으면서 심란한 마음을 달랬다. 강바람에 꽃향기라도 맡으니 위로가 되었다.

빈두사라는 초저녁을 훌쩍 넘긴 시각에 왕비별궁으로 왔다. 달이 궁중정원 숲 위로 올라 달빛을 뿌렸다. 다르마와 락슈미띳사가 왕비별궁 정문 밖까지 나와 맞이했다. 빈두사라는 연회를 파하고 오는 듯 입에서 포도주 냄새를 풍겼다.

"왕비여, 꾸날라는 탈이 없지요?"

"양모를 구해야 할 텐데 걱정이옵니다."

빈두사라는 술을 많이 마셨는지 약간 비틀거렸다. 락슈미띳사가 놀라 가까이 다가섰다가 물러났다.



"대취했소. 신하들을 내보내고 난 뒤 혼자서 더 마시고 이곳으로 왔소."

"기쁜 일로 드셨사옵니까?"

"왕국에 기쁜 날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소. 이번에는 웃자인 지방이 시끄럽소. 늘 변방소국이 문제요."

웃자인은 바라나시에서 남서쪽으로 십여 요자나 거리에 있는 아반띠국의 수도였다. 남인도와 북인도 사이에 있어 상인들의 발길이 잦은 무역이 발달한 나라였다. 방으로 들어온 다르마가 화제를 돌렸다.

"아쇼까를 결혼시키면 손자 꾸날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이옵니다."

"맞소. 새 왕자비가 오면 꾸날라도 좋을 것이오."

"제 생각도 그렇사옵니다."

"왕자비가 될 사람을 보기라도 했소?"

"마침 빠딸리뿌뜨라 성 안에 조용하고 착한 여자가 있사옵니다."

"이 일은 왕비가 알아서 하시오."

다르마는 빈두사라의 눈치를 보아가며 말했다. 아쇼까가 사람들을 불신하고 있다는 말은 한 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평소에도 빈두사라가 아쇼까의 행동을 탐탁지 않게 말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다음날. 빈두사라의 허락을 받은 다르마는 락슈미띳사에게 말했다.

"어제 대왕님께서 나에게 일임했다. 그러니 너는 아상디밋따 집에 가서 대왕님이 허락했다고 전하거라."

"잘 됐습니다. 왕비님. 아상디밋따 부모는 소원이 이루어졌으니 더 없이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게 좋아하더냐?"

"원래 브라흐민이었는데 너무 가난하여 수드라처럼 살고 있었거든요. 딸이 왕궁으로 들어오면 살림도 펴지지 않겠습니까?"

빠딸리뿌뜨라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딸이 왕비나 왕세자비가 되는 간택이었다. 그러면 세금이 면제되고, 궁에서는 경사가 생길 때마다 수시로 진귀한 물품을 내려 보냈다. 그러한 물품을 시장에 내다 팔면 바로 생활에 큰 보탬이 되었다.

다르마는 아쇼까별궁으로 찾아갔다. 마침 아쇼까는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며 낮잠을 자고 있었다. 다르마가 손을 잡아 흔들어대자 그제야 아쇼까가 잠에서 깼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너에게 경사가 생겼다."

"경사라니요?"

"꾸날라를 키워줄 새 엄마가 생길 것 같다. 너만 좋으면. 나이 들어가는 내가 무슨 수로 꾸날라를 잘 키울 수 있겠니."

아쇼까는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지었다가 두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꾸날라를 키워줄 여자라는 말에 정신을 차렸다.

"어떤 여자인가요?"

"이름은 아상디밋따인데 브라흐민 딸이다. 락슈미띳사가 직접 보았는데 아주 얌전하고 착한 여자라고 하더구나."

"꾸날라를 잘 키워주기만 한다면."

"그럼, 결혼하겠다는 것이냐?"

"그 여자가 꾸날라를 잘 키울 것이라고 하니까요. 굳이 결혼식이 필요하겠어요? 양모처럼 들어와 살면 되겠지요."

"내 말을 믿어주니 고맙구나. 오늘 밤에라도 아상디밋따를 내 별궁으로 불러들일 테니 와서 네 눈으로 확인해 보거라."

"그럴게요. 꾸날라를 얼마나 잘 대해 줄지 시험해 보겠습니다. 어머니."

다르마는 밤까지 기다리지 못했다. 락슈미띳사에게 아상디밋따와 그녀의 아버지를 데리고 오도록 지시했다. 아상디밋따와 꾸날라가 친해질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다. 꾸날라가 아상디밋따를 따르지 않으면 아쇼까가 돌아서버릴 수도 있었다.

잠시 후, 아상디밋따와 그녀의 아버지가 왕비별궁으로 왔다. 다르마는 아상디밋따를 보는 순간 마음이 놓였다. 락슈미띳사의 말대로 아상디밋따는 차분하고 조용했다. 다만 옷차림이 너무 초라하여 측은한 마음이 들 정도였다. 그녀 아버지는 다르마를 바로 쳐다보지 못했다.

"딸을 행복하게 해줄 터이니 안심하시오."

"가문의 영광이옵니다. 눈이 부시어 고개를 들지 못하겠사옵니다."

"이제 사돈의 인연을 맺을 터이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저의 딸은 왕자님께 순종하고 왕자님의 아드님을 친 아들처럼 기르겠다고 인드라 신께 맹세했사옵니다."

남루한 옷차림과 달리 브라흐민의 피가 흐르는 그녀의 아버지 말투는 진중했다. 다르마가 아상디밋따를 쳐다보며 말했다.

"거룩한 마음을 내었다고 하니 고맙구나."

"인드라 신께 맹세했으니 제 마음은 반석 같을 것이옵니다."

"오, 착하기도 해라."

다르마는 락슈미띳사를 불러 지시했다.

"아상디밋따를 별실로 데리고 가서 내 비단 사리를 입히고 보석으로 된 발찌와 팔찌를 주거라."

"예, 알겠습니다."

"꾸날라도 데리고 오거라."

걸음마를 막 시작한 꾸날라는 궁녀들이 돌보고 있었다. 새 옷으로 갈아입은 아상디밋따는 전혀 다른 여자로 보였다. 눈부시게 아름다웠고 왕족처럼 고상하게 보이기까지 했다. 다르마는 아쇼까가 보면 단번에 반할 것이라고 흡족해 했다. 그런데 더 놀랄 일이 벌어졌다. 락슈미띳사 가슴에 안긴 꾸날라가 아상디밋따에게 가려고 손을 내밀었다. 꾸날라가 친엄마를 만난 듯 아상디밋따 품에 안겨서 까르르 웃었다.

그날 밤이었다. 달빛이 왕비별궁 지붕에 쏟아져 내렸다. 달빛을 받은 정원의 공작야자수 이파리들이 반짝거렸다. 공작야자수 이파리들은 독수리 날개처럼 크고 의젓했다. 초저녁에 왕비별궁으로 온 아쇼까는 꾸날라를 보듬고 있는 아상디밋따를 보자마자 미소 지었다.〈계속〉

불기2565(2021)년 부처님오신날
희망과 치유의 연등을 밝힙니다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사단법인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한국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대 봉
종도일동
KBB한국불교방송주식회사, KBB한국불교방송신문, 월간시사뉴스, KBB한국불교방송자문위원회, KBB한국불교방송불자총연합천불회
사) 한국불교조계종협의회 총본산
총무원 : 경북 문경시 마성면 신현1길 24 문경백봉사 TEL 1577-1016, 054-571-6973,1030(협의회) / 팩스 : 054-571-7498
방송국 : 대구시 달서구 용산동 545번지 예림빌딩 606호 TEL 1670-2010